

S#1대학교 내부 거리/낮

Fade In

밝은 대낮. 화면 중앙에는 영화 촬영을 위한 카메라 한 대가 놓여있다.

(Cut to)

지훈(남,28)가 가은(여,22)은 나란히 서서 걸어가고 있다.

가은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비현실적인거 같다 하셔가지구요.

지훈 아 그쵸.. 비현실적이긴 하죠.

가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서만 바꾸어도 꽤 괜찮을거같거든요? 아님 뭐 낮을
 밤으로 바꾸던가?

지훈 그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지훈은 고개를 돌리다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경민(여,28)을 발견한다.

지훈 어, 잠시만요.

가은 네?

지훈 아는 사람을 본 거 같아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지훈은 경민에게 걸어간다.

지훈 경민아

경민 (귀 한 쪽 이어폰을 빼며)어? 지훈아.

S#2거리/낮

지훈과 경민이 같이 거리를 걷고 있다.

지훈 긴가 민가 했는데, 너였네

경민 그러니까 이 무슨 우연이야, 여기서 너를 다보네.

지훈 근데 너 졸업한거 아니야? 학교는 무슨일로 왔어?

경민 아. 졸업장 받으러, 난 바로 취업해서 졸업식 안갔었거든, 근데 한번 안가니
 까 별의 별 이유로 안가지게 되더라.

지훈 근데, 이번에 어떻게 왔데?

경민 아.. 희선 언니 여기 앞에서 결혼하잖아. 그래서 근처 온김에 왔지.

지훈 아..희선 누나

경민 그나저나 우리 한 5년 만인가?

지훈 아니. 4년 됐지.

경민 아.. 어떻게 잘 지냈어?

지훈 잘 지내지..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잠간의 침묵.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지훈과 경민은 같이 하늘을 바라본다.

(Cut to)

벤치 위에 앉아있는 경민과 지훈

지훈 그래서 넌 어디서 일하는데?

경민 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작년에 공시 붙어서 공무원하고 있어.

지훈 어 그렇구나... 근데 너 사진작가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

경민 내가..? 그랬었나? 에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지훈 그렇긴 하지.

경민 어떻게 학교는 다닐만해?

지훈 학교.. 뭐 아는 사람이 없긴한데. 괜찮아.

경민 아.. 그래? 근데 학교 오랜만에 오니까 옛 생각 많이 난다. 그.. 박교수님 아직 계신가?

지훈 아니 얼마 전에 퇴직하셨어.

경민 정말?

지훈 어어..

경민 잘해주셨는데..(잠깐의 침묵) 담배 한 대 피자. 흡연장이 저긴가?

경민은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일어난다.

S#3흡연장/낮

흡연장으로 경민과 지훈이 들어오고, 경민은 가방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들고 자연스럽게 입에 문다.

경민 뭐해 담배 없어? 하나 줄까?

지훈 아니야. 나 담배 끊었어?

경민 (코웃음 치며) 니가?

지훈은 멧쩍은 미소를 짓는다.

경민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경민 나랑 만날때는 그렇게 피워대더니. 어떻게 끊었는데

지훈 담배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왜 피냐..

경민 뭐 그렇게 됐어.

어색한 침묵

경민 근데 너 좀 변한거 같다. 옛날이랑 좀 다른거 같애.

지훈 내가?

경민 어.(담배 연기를 뿜으며)

경민은 담배 재를 털고, 쓰레기 통에 버린다.

경민 가자.

지훈 난 이제 들어가 봐야지. 너도 가봐.

경민 어.. 아 그래.. 잘가

지훈과 경민은 서로의 갈 길을 간다.

S#5대학교 내부 거리/밤(S#1과 장소 동일)

어두운 밤, 화면 중앙에는 영화 촬영을 위한 카메라 한 대가 놓여있다.

(Cut to)

슬레이터가 슬레이트를 들고 중앙에 서있다.

슬레이터 테이크 2

슬레이트를 치고 화면 밖으로 빠져 나온다.

지훈과 가은이 프레임 인 한다.

가은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현실적인거 같다 하셔가지구요.

지훈 아 그쵸..

가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면을 좀더 보여주면 관객들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훈 그것도 괜찮을거 같네요.

지훈은 고개를 돌리다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경민(여,28)을 발견한다.

지훈 어, 잠시만요.

가은 네?

지훈 아는 사람을 본 거 같아서요. 먼저 들어가세요.

지훈은 경민에게 걸어간다.

지훈 경민아

경민 (귀 한 쪽 이어폰을 빼며)어? 지훈아.

S#6거리/밤

지훈과 경민이 같이 거리를 걷고 있다.

지훈 긴가 민가 했는데, 너였네

경민 그러니까 이 무슨 우연이야, 여기서 너를 다보네.

지훈 근데 너 졸업한거 아니야? 학교는 무슨일로 왔어?

경민 아. 졸업장 받으러, 난 바로 취업해서 졸업식 안갔었거든, 근데 한번 안가니까 별의별 이유로 안가지게 되더라.

지훈 근데, 이번에 어떻게 왔데?

경민 아.. 희선 언니 여기 앞에서 결혼하잖아. 그래서 근처 온김에 왔지.

지훈 아..희선 누나

경민 그나저나 우리 한 5년 만인가?

지훈 아니. 4년 됐지.

경민 아.. 어떻게 잘 지냈어?

지훈 잘 지내지..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잠깐의 침묵.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ins

커다란 스피커가 있고, 그곳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온다.

지훈과 경민은 같이 멈추어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비행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지훈과 경민 프레임 아웃
누추한 옷차림의 중년남성이 프레임 인한다.

중년남성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저 둘이는 사실 이름도 다르고 이번에 처음 보는거예요. 지금 다 속고 있는거라구요.

슬레이터가 들어와서 중년남성을 강제로 끌고 프레임 아웃 시킨다.

(Cut to)

벤치 위에 앉아있는 경민과 지훈, 가로등 불빛이 둘을 밝힌다.

ins

텅스텐 조명을 보여준다.

지훈 그래서 넌 어디서 일하는데?

경민 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작년에 공시 붙어서 공무원하고 있어.

지훈 어 그렇구나... 근데 너 사진작가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

경민 내가..? 그랬었나? 에이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지훈 그렇긴 하지.

경민 어떻게 학교는 다닐만해?

지훈 학교.. 뭐 아는 사람이 없긴한데. 괜찮아.

경민 아.. 그래? 근데 학교 오랜만에 오니까 옛 생각 많이 난다. 그.. 박교수님 아직 계신가?

지훈 아니 얼마 전에 퇴직하셨어.

경민 정말?

지훈 어어..

경민 잘해주셨는데..(잠간의 침묵) 담배 한 대 피자. 흡연장이 저긴가?

경민은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일어난다.

S#7흡연장/밤

흡연장으로 경민과 지훈이 들어오고, 경민은 가방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들고 자연스럽게 입에 문다.

경민 뭐해 담배 없어? 하나 줄까?

지훈 아니야. 나 담배 끊었어?

경민 (코웃음 치며) 니가?

지훈은 멧쩍은 미소를 짓는다.

경민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경민 나랑 만날때는 그렇게 피워대더니. 어떻게 끊었는데

지훈 담배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왜 피냐..

경민 뭐 그렇게 됐어.

어색한 침묵

경민 근데 너 좀 변한거 같다. 옛날이랑 좀 다른거 같애.

지훈 내가?

경민 어.(담배 연기를 뿜으며)

경민은 담배 재를 털고, 쓰레기 통에 버린다.

경민 가자.

지훈 난 이제 들어가 봐야지. 너도 가봐.

경민 어.. 아 그래.. 잘가

지훈과 경민은 서로의 갈 길을 간다.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샷 사이즈가 넓어지고 스태프들의 모습이 보인다.

감독(v.o) 컷

암전